

역경을 넘어 도전과 성장으로!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KAISTian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학교를 누비며 학업이라는 긴 여정이 끝나고, 사회라는 새로운 문턱에 서게 되는 학위수여식이 돌아왔다. KAIST는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박사 785명, 석사 1,643명, 학사 716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올해에는 개교 이래 최초로 외국인 학생의 졸업생 대표 연설을 진행했을 뿐 아니라, KAISTian들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200억 원 상당을 기부한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이 참석해 화제가 됐다.

Dear KAIST graduates, Today is a day to celebrate your accomplishments, and it also marks the beginning of a new journey. You will now step into society, take on new challenges in pursuit of your dreams, and create your own unique stories.

KAIST
COMMEMORATION 2025
14 FEBRU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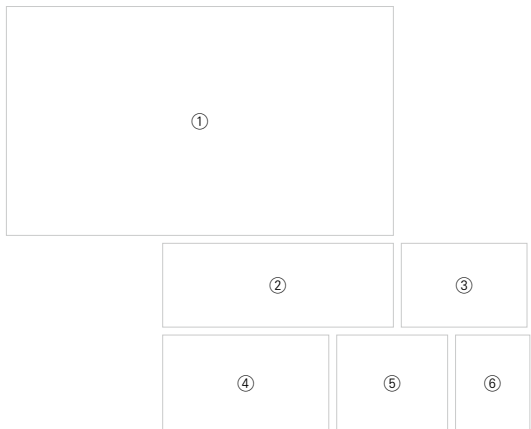
고난과 역경도 KAISTian을 막을 수 없다

졸업이란 학업을 마무리하는 장이지만, 사회로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다. 또 한 도전과 역경의 시간을 넘어,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는 자리이기도 하다. 2월 14일 KAIST 역시 류근철 스포츠컴플렉스에서 졸업생 3,144명의 학위수여식을 치렀다. 이날 졸업식에선 KAIST 개교 이래 최초로 외국인 학생이 졸업생 대표 연설을 맡아 화제가 됐다.

화제의 주인공은 나이지리아 유학생 모하마드 함자(Mohammed Haruna Hamza)씨다. 함자씨는 모국에서 테러 집단의 폭격으로 인해 집과 학교를 잃었음에도 항공우주 엔지니어의 꿈을 놓지 않고 학업을 이어 나갔다. 이러한 노력 끝에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2022년 KAIST 석사과정에 입학했고, 항공우주학과 석사과정을 끝마칠 수 있었다. 함자씨는 졸업생 대표 연설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공우주엔지니어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며 “역경을 도와준 사람들과 경험에 감사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 항상 기억해 주세요. 미래는 우리가 오늘 내리는 결정의 결과입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향후 KAIST 박사과정에 입학해 인공지능 광학 시스템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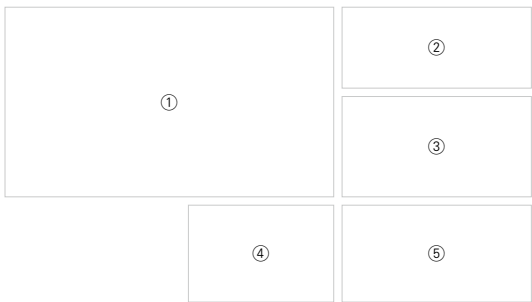
이처럼 함자 씨의 연설이 이목을 끄는 모은 가운데, 파키스탄 유학생 사이드 알리(Syed Sheraz Ali)씨 역시 학업에 대한 열정과 도전 과정을 사람들에게 선보였다. 한 살 된 아들을 고국에 남겨둔 싱글 파더 알리 씨는 대학 강사로 일하며, 기계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열정으로 2019년 기계공학과 박사과정에 진학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연구가 6개월 중단됐는가 하면, 자전거 사고로 팔꿈치 골절과 코 수술, 신장결석까지 세 차례의 수술을 받아 학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알리 씨는 여러 역경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아냄으로써 실패를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KAIST 실패연구소가 주최하는 ‘실패프로젝트 쇼케이스’, ‘실패수기 공모전’ 등에서 공유하며, 더욱 단단한 연구자로 성장했다. 알리 씨는 오일권 기계공학과 교수 연구실에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인공 근육 나노소재인 맥신(MXene)을 활용해 세계 최고 굽힘 변형률을 갖는 인공 근육(소프트 액추에이터)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알리 씨는 “박사 학위를 마친 후에도 차세대 2D 물질인 맥신을 기반으로 소프트 로봇, 헬스케어 전자기기, 차세대 촉각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후배들에게 충고했다.

한편, KAIST의 경영 교육을 실전에 적용함으로써 스타트업을 글로벌기업으로 도약시킨 졸업생의 사례도 눈에 띈다. 그 주인공은 인공지능 스타트업 프로메디우스의 CEO인 정성현씨로,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바이오혁신경영전문 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렇다면 그가 주목받는 연유는 무엇일까? 과거 정씨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중 한중 갈등 고조로 중국에서 사업 실패를 경험했다. 사업 재기를 위해 연일 바쁘게 노력했으나,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정씨는 KAIST 졸업생들이 창업한 글로벌 의료 AI 선도기업 루닛에 입사할 기회를 얻어 루닛 백승욱 의장 등과 함께 글로벌 의료 AI 시장의 성장을 직접 경험했다.



- ① KAIST 개교 이래 최초로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생 대표 연설을 맡았다.
- ② 류근철 스포츠컴플렉스에서 박사 785명, 석사 1,643명, 학사 716명 등 졸업생 3,144명의 학위수여식을 치렀다.
- ③ 김영자 KAIST 이사장이 학위수여식 개최를 선언했다.
- ④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우수 졸업자를 시상하고 축사를 전했다.
- ⑤ 실패를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준 사이드 알리씨.
- ⑥ KAIST의 경영 교육을 실전에 적용함으로써 스타트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시킨 정성현씨.





- ① 2월 14일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이 기부한 '우정(宇庭) 연구동' 준공·기증식.
- ②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은 KAIST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후 기숙사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했다.
- ③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이 명예박사 수여 기념 소감을 밝히고 있다.
- ④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이 이광형 총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⑤ 이종근 회장이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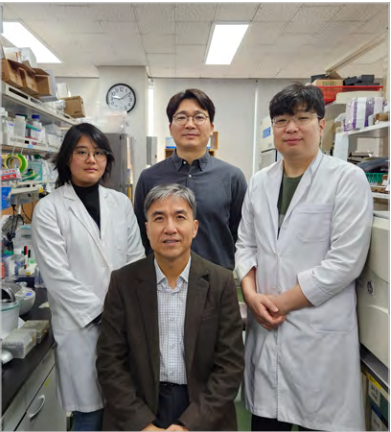
의료 AI 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정 씨는 전문 지식 습득을 위해 2023년 바이오혁신경영전문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며, 프로메디우스로 이직했다. 다만 이직한 시점에서 회사 자금을 소진하기까지 6개월가량 남지 않은 상황에 부딪혔다. 기존 사업 아이템만으로는 생존이 버겁다고 판단된 그는 사업 방향 전환을 고민하던 중 조훈제 교수의 '바이오혁신창업 전략과 실제' 수업에서 벤처 캐피털(VC)이 주목하는 키워드와 투자 심사 관점을 배웠다. 정 씨는 이 수업을 바탕으로 투자 제안서(IR)를 작성해 114억 원의 투자유치를 끌어냈다. 또한 박기환 교수의 '혁신과 제약바이오 마케팅'에서 배운 의료분야 혁신전략을 골다공증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아시아 기업 최초로 국제골다공증재단(IOF)의 기업자문위원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즉 KAIST 경영 교육을 실제 경영에 적용해 단기간에 골다공증 분야 대표적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거둔 것이다. 정 씨는 “험난했던 제 삶이 KAIST를 만나면서 성공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며 “장기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일류 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처럼 KAISTian들은 도전과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려 나가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이광형 KAIST 총장은 “꿈을 품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길 바란다”며 격려의 말을 전달했다.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 KAIST 연구 환경 개선에 기여

한편, KAISTian이 역경을 넘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던 데에는 KAIST의 든든한 지원과 교육 환경 개선이 이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졸업생과 기업의 지속적인 기부 덕분에 KAIST 학생들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다. 특히 2023년에는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이 200억 원 상당을 기부해 노후된 기숙사의 리모델링을 지원했다. KAIST는 이 회장의 기부금으로 기숙사 4개 동을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했다. 그중 나눔 관은 환경 개선 공사가 완료돼 학위수여식과 같은 날 준공·기증식을 개최했고, 기부자인 이 회장의 야호를 따 '우정(宇庭) 연구동'으로 명명했다. 앞으로 해당 공간은 기숙사에서 탈피해 연구 공간으로서 학문적 기반을 다지는 데 이바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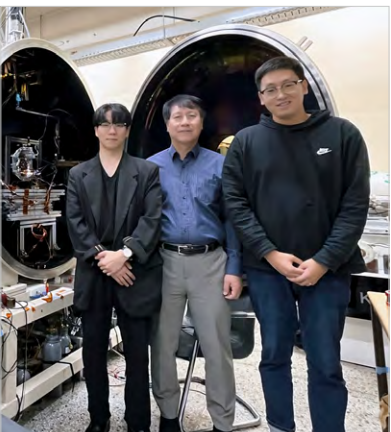
이 회장은 그간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 지속적인 기부와 시설 지원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과 사회 전반의 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 지역에 버스와 트럭을 기증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였다. 또 아프리카를 포함한 해외 600여 곳에 교육 시설 지원하고, 인프라 기부를 통해 개발 도상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해 왔다. KAIST는 이 회장이 교육과 연구 환경 개선을 비롯한 각종 분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해 학위수여식에서 명예경영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에 이 회장은 “KAIST로부터 명예박사를 받게 되어 영광이며, KAIST 학생들이 꿈과 재능을 키워나가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총장은 “이종근 회장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으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학술 인프라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책임감을 엿볼 수 있다”며 “KAIST 가족으로 모시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을 대표해 축하드린다”고 화답했다. [KAISTian](#)



+ 암세포 발생 순간 되돌리는 분자스위치 발견

바이오및뇌공학과 조광현 교수 연구팀은 정상세포에서 암세포로 변화하는 순간의 임계 전이 현상을 포착하고, 이를 분석해 암세포를 다시 정상세포로 되돌릴 수 있는 분자스위치를 발굴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암 가역화 분자스위치를 체계적으로 찾아내는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다른 암종의 가역 치료제 개발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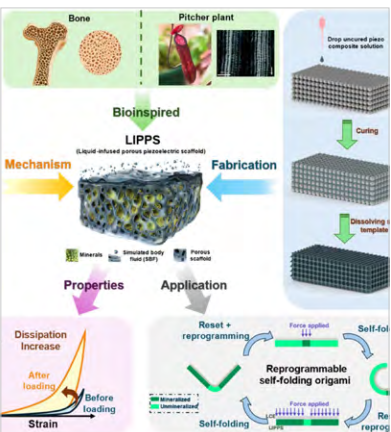
>> 더보기



+ 시로 우주용 전기추력기 개발·고성능 예측

원자력및양자공학과 최원호 교수 연구팀이 인공위성이나 우주탐사선의 엔진인 홀 전기 추력기의 추력 성능을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을 개발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인공지능 예측 기법은 단 수초 내로 추력기의 성능을 예측할 수 있어, 홀추력기의 설계, 제작, 시험의 반복 작업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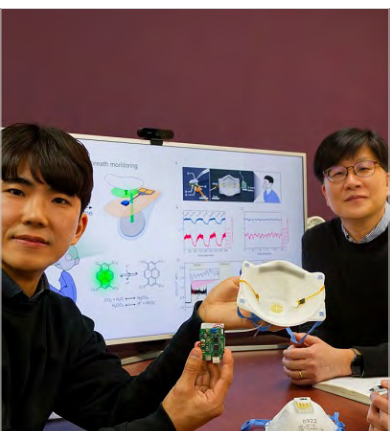
>> 더보기



+ 뼈처럼 사용할수록 더 강해지는 신소재 개발

KAIST 신소재공학과 강성훈 교수 연구팀이 존스홉킨스대학, 조지아 공과대학과 공동연구를 통해 뼈가 운동을 하면 더 강해지는 것과 같이 반복적으로 사용할수록 더욱 강해지는 신소재를 개발했다. 연구팀은 세포의 작용에 의존하지 않고도 힘을 많이 가할수록 더 많은 전하를 생성하는 다공성 압전 바탕재를 만든 후, 그 안에 피와 유사한 미네랄 성분을 갖는 전해질을 넣어 복합재료를 합성했다.

>> 더보기



+ 수면 무호흡증 실시간 진단 센서 개발

전기및전자공학부 유승협 교수 연구팀이 실시간으로 안정적인 호흡 모니터링이 가능한 저전력 고속 웨어러블 이산화탄소 센서를 개발했다. 연구팀은 LED와 이를 감싸는 유기 포토다이오드를 활용해, 기존 센서보다 수십 배 낮은 소비 전력을 달성했다. 또한 센서에 사용되는 형광 분자의 광 열화 경로를 규명해 광화학적 센서에서 사용 시간에 따라 오차가 증가하는 원인을 밝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광학적 설계 방법을 제시했다.

>> 더보기



+ 기계공학과 공경철 교수, 올해의 KAIST인상 수상

KAIST는 개교 54년을 맞아 '올해의 KAIST인상' 수상자로 공경철 기계공학과 교수를 선정했다. 24번째 수상자로 선정된 공경철 교수는 4년마다 신체장애를 로봇 기술로 극복하는 국제대회인 '2021 사이배슬론'에서 2020년에 이어 2회 연속 금메달을 석권하며 KAIST 로봇 기술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 교수는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근로자, 고령자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최첨단 기술'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 더보기

+ 김정택·안소연 동문 부부, 전산학부에 장학기금 2억 원 기부

KAIST 전산학부 92학번 동문인 김정택·안소연 부부가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2억 원을 기부했다. 두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지속하거나 취업을 준비하기 힘든 학생들을 돕기 위해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 류석영 전산학부장은 "김정택·안소연 동문 부부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더 많은 학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과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더보기

+ 삼성휴먼테크논문대상 대학부문 17명 대거 수상

삼성전자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제31회 삼성휴먼테크논문대상에서 KAIST 학생 17명이 대거 수상했다. 해당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학술논문대회로,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KAIST는 대학 부문에서 개인에게 시상되는 10개 분과 중 4개 분과의 금상을 석권했고, 컴퓨터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는 KAIST 학생이 절반의 상을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 더보기

+ 신소재공학과 주소연 박사, 세계적 학술지 부편집장 임명

신소재공학과 주소연 박사가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재료 과학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Advanced Materials)의 출판 개발팀 부편집장으로 임명됐다. 주소연 박사의 임명은 한국의 젊은 연구자에게 국제 학술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임무를 부여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한국 연구자의 글로벌 무대에서 높아진 위상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더보기



+ 최근 3년간 학사과정 61% 지원 급증한 가운데 2025학년도 학사과정 입학식 개최

KAIST는 2월 19일 대전 본원 대강당에서 2025년도 학사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 KAIST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선발을 위해 창의도전전형 신설, 과학영재선발제도 활성화 등 학사과정 입학전형을 개편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그 결과 2025학년도 학사과정 지원자는 3년 전인 2023학년도 대비 61%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 더보기

+ 대만 포모사 지원 바이오 R&D센터 설립 및 약 180억원 투자 유치

KAIST는 대만의 3대 기업 중 하나인 포모사그룹과 바이오 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포모사그룹은 KAIST에 바이오 의료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5년간 약 18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연구 결과를 사업화하고자 양 기관은 KAIST 출자회사인 (주)KAIST홀딩스와 국내에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

>> 더보기

+ 대학생 SW 개발자 모여라! 에스티데브 컨퍼런스 2025

KAIST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동아리인 스팍스(SPARKS)가 설립한 (사)에스티데브(STDev)가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전국 대학생 개발자들을 위해 새롭게 기획한 '에스티데브 콘퍼런스 2025(STDev Conference)'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전국 대학생 개발자와 개발 단체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개발자들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기술, 강연, 이전 해커톤 수상자들의 우수작을 선보였다.

>> 더보기

+ 차미영 교수, 2024 ACM Distinguished Member 선정

KAIST 전산학부 차미영 교수가 미국 컴퓨터학회(ACM)의 특훈회원으로 선정됐다. ACM의 특훈회원은 컴퓨터 및 정보기술 분야에서 연구 업적이 뛰어나고, 후학과 연구자들에게 롤모델이 되는 인물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지위다. 특히 ACM 전체 회원 중 상위 10% 이내에서 선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차 교수는 허위 정보 분석, 사기 감지, 빈곤 맵핑 등 계산 사회과학 연구에서 두드러진 기여를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더보기